

\*최근 수정일 : 2023.10.17.(화)

## ■ [공통: 독서·문학]

01. ② 02. ③ 03. ③ 04. ③ 05. ⑤ 06. ④ 07. ① 08. ⑤ 09. ④ 10. ⑤  
 11. ② 12. ④ 13. ⑤ 14. ③ 15. ⑤ 16. ⑤ 17. ① 18. ⑤ 19. ② 20. ③  
 21. ③ 22. ② 23. ④ 24. ④ 25. ③ 26. ② 27. ④ 28. ① 29. ④ 30. ⑤  
 31. ④ 32. ② 33. ④ 34. ①

## [1~3] 독서

## [1~3] 독서 이론, '읽기 준비 단계'

**지문해설** : 이 글은 읽기 발달 단계를 위계화했을 때, 그 첫 단계에 해당하는 읽기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험의 양상, 그리고 그러한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읽기 준비 단계는 읽기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의 영·유아는 글자를 깨치지는 못하더라도 읽기 발달을 위한 여러 가지 유의미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읽기 발달은 글자를 깨치기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따라서 읽기 준비 단계에서의 경험은 이후의 읽기 발달 단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제]** 읽기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의 양상과 그 경험의 중요성

##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영·유아의 다양한 읽기 경험을 설명하면서 '의사소통의 각 영역인 듣기·말하기·읽기·쓰기는 서로 영향을 주며 함께 발달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의사소통 각 영역이 상호 간의 작용 없이 발달한다는 것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대개 '읽기 준비'를 하나의 단계로 보고, 이후의 단계를 '글자를 익히고 소리 내어 읽기', '의미를 이해하며 읽기', '학습 목적으로 읽기', '다양한 관점으로 읽기', '의미를 재구성하며 읽기'의 순으로 나눈다.'라고 하였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의미를 재구성하며 읽는 단계는 읽기 발달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③ 2문단에서 '이 시기의 영·유아는 글자를 깨치지는 못하더라도 글자의 형태에 익숙해지며, 글자와 소리의 대응 관계도 어렵듯이 알게 된다.'라고 하였다. ④ 1문단에서 '이 연구들에서는 읽기 행동의 특성이나 글에 대한 이해 수준 등에 따라 읽기 발달 단계를 위계화한다.'라고 하였다. ⑤ 1문단에서 '대개 '읽기 준비'를 하나의 단계로 보고, 이후의 단계를 '글자를 익히고 소리 내어 읽기', '의미를 이해하며 읽기', '학습 목적으로 읽기', '다양한 관점으로 읽기', '의미를 재구성하며 읽기'의 순으로 나눈다.'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할 때, 글자를 습득하고 소리 내어 읽는 단계는 학습을 목적

---

으로 읽는 단계보다 선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읽기 준비 단계)에서 영·유아는 글자를 깨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에서 영·유아는 ‘읽는 흉내’를 낼 뿐, 글에 나타난 여러 단어의 뜻을 명확히 알고 글자를 읽지는 못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3문단의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따라 말하는 것, 들은 단어나 구절을 사용해 문장을 지어 말하는 것’으로부터 적절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의 ‘타인의 책 읽는 모습을 보며 글의 시작 부분, 글자를 읽는 방향’을 알게 된다는 것과 ‘책 읽는 흉내를 내는 것’으로부터 적절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의 ‘읽어 주는 것을 들으며 그림이나 글자 형태로 끄적거리는 것’으로부터 적절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의 ‘읽어 주는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을 기억해 모방하기도 한다.’로부터 적절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 3.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A]에서는 ‘읽기 발달은 일정한 시기에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깨치기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였다. 이와 달리 <보기>에서는 ‘읽기 지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에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두 내용을 비교해 볼 때, [A]와 달리 <보기>는 글자 읽기의 기초 기능을 배운 후부터 읽기 발달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는 ‘생활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지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나, <보기>에는 ‘일상에서의 자연스러운 읽기 지도’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따라서 [A]와 달리 <보기>가 이러한 읽기 지도를 강조한다고 볼 수 없다. ② [A]에서는 ‘읽기 발달은 일정한 시기에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깨치기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였다. 이와 달리 <보기>에서는 ‘읽기 지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에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글자를 깨치기 전의 경험이 읽기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은 <보기>가 아니라 [A]이다. ④ <보기>에서는 ‘듣기와 말하기를 가르친 후 읽기, 쓰기의 순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달리 [A]에서는 ‘의사소통의 각 영역이 같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지도가 읽기 발달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였다. ⑤ [A]에서는 ‘읽기 발달은 일정한 시기에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깨치기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였다. 이와 달리 <보기>에서는 ‘읽기 지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에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에 읽기를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에는 <보기>만 해당한다.

#### [4~7] 독서

#### [4~7] 사회, ‘데이터 소유권과 데이터 이동권’

**지문해설** : 이 글은 데이터 소유권 주체에 관한 논의의 내용을 소개한 후, 최근에 논의의 중심이 된 데이터 이동권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데이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에서는 데이터 소유권의 주체를 빅 데이터 보유자로 보는 견해와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데이터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한편, 데이터가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주제]** 데이터 소유권의 주체에 대한 논의와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에 따른 변화

#### 4.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할 때, 우리나라 현행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데이터의 소유권이 아니라 데이터의 이동권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라고 하였다. ② 1문단에서 ‘교통 이용 내역’과 같은 기록이 ‘개인의 데이터’이고 이러한 데이터가 대량으로 집적·처리되면 ‘빅 데이터’가 되며, 빅 데이터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했다. ④ 2문단에서 ‘후자(소유권의 주체를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는 정보 생산 주체는 개인인데,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보 주체에게도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라고 했다. ⑤ 3문단에서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쇼핑몰 상품 소비 이력 등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라고 하였다.

#### 5.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A]에는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데이터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견해가, [B]에는 데이터가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견해가 나타나 있다. 3문단에서 ‘데이터 이동권이란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본인 혹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게 하는 권리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할 때, 데이터 이동권에 따른 데이터 전송은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은 ㉡로 데이터를 이동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서는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기업은 데이터의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생성 비용은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보다 전송받은 데이터를 복제 및 재사용하게 되면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A]의 입장에서, ㉡는 데이터 이동권 도입을 통해 ㉠의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데이터 생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볼 것이다. ② [A]에서는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기업은 데이터의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였고, ‘거래 비용은 경제 주체 간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약 체결이나 분쟁 해결 등의 과정에서 생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A]의 입장에서, 정보 주체가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여 데이터를 전송받는 제3자가 ㉠라면, ㉡는 분쟁 없이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받게 되어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볼 것이다. ③ [B]에서는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이 집적·처리된 데이터를 공유하려 하지 않으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독점화가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B]의 입장에서, ㉠가 ㉡와의 거래에 실패해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여 ㉡에 데이터 생성 비용이 발생하면, 데이터 관련 산업의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볼 것이다. ④ [A]에서는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라고 하였다. 이와 달리 [B]에서는 ‘정보 주체가 보안의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면, 데이터가 집중되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A]와 달리 [B]의 입장에서, 정보 주체의 데이터가 ㉠에서 ㉡로 이동하여 집적·처리될수록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3문단에서 ‘본인의 데이터라도 빅 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하여, 분석·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이(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보기>의 ‘연령별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은 빅 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하여, 분석·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이므로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체크 카드 사용 내역’은 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하여, 분석·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며,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이동 요청하면 A 은행은 갑의 ‘체크 카드 사용 내

역'을 B 은행으로 전송해야 한다. ② 3문단에서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였다.'라고 하였으며,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쇼핑물 상품 소비 이력 등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할 때, A 은행에 대한 갑의 데이터 이동 요청은 정보 주체의 자율적 관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데이터 이용권의 도입에 따라 강화된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후자(데이터 소유권의 주체를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는 정보 생산 주체는 개인인데,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보 주체에게도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할 때 갑이 A 은행으로부터 받은 포인트는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법제화 이전에도 은행 간에 계좌 자동 이체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있었다.'라고 하였다.

## 7.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쉬워져)는 '하기가 까다롭거나 힘들지 않다.'의 의미로 쓰였으며, ㉡(따라)는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용이(容易)하다'는 '어렵지 아니하고 매우 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근거(根據)하다'는 '어떤 일이나 판단, 주장 따위가 어떤 현상이나 사실에 바탕을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은 '용이(容易)해져'로 바꾸어 쓸 수 있고, ㉡은 '근거(根據)하여'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유력(有力)하다'는 '세력이나 재산이 있다.' 또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은 '유력(有力)해져'로 바꾸어 쓸 수 없다. ㉢ '의탁(依託)하다'는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은 '의탁(依託)하여'로 바꾸어 쓸 수 없다. ㉣ '원활(圓滑)하다'는 '모난 데가 없고 원만하다.'와 '거침이 없이 잘 나가는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은 '원활(圓滑)해져'로 바꾸어 쓸 수 있다. 그러나 ㉡은 '의탁(依託)하여'로 바꾸어 쓸 수 없다. ㉤ ㉠은 '유력(有力)해져'로 바꾸어 쓸 수 없다. 그러나 '기초(基礎)하다'는 '근거를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은 '기초(基礎)하여'로 바꾸어 쓸 수 있다.

[8~11] 독서

[8-11] 과학·기술,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와 그 응용'

**지문해설 :** 이 글은 압전 효과에 기반을 둔 수정 진동자를 이용하여 미세 물질의 질

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설명한 후, 이 원리를 응용하여 기체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압전 효과에는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재료에 전압이 발생하는 1차 압전 효과와 재료에 전압을 걸면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2차 압전 효과가 있다. 이러한 압전 효과가 생기는 재료인 수정을 가공하고 전극을 만든 후에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하는 주파수의 전압을 가하여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한 것이 수정 진동자이다. 수정 진동자는 질량 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미세한 질량을 갖는 물질이 달라붙어도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이러한 초정밀 저울의 원리를 응용하면 수정 진동자로 기체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주파수가 많이 감소하여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른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놓으면 대상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대상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다.

**[주제]** 압전 효과를 이용한 미세 물질의 질량 측정과 기체 농도의 측정 원리

## 8.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압전 효과의 개념을 제시한 후, 3문단에서 압전 효과를 이용한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4, 5문단에서는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가 적용된 기체 농도 측정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압전체인 수정을 가공하여 수정 진동자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나 압전 효과가 생기는 재료인 압전체 자체를 제작하는 방법은 소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제작 시 유의점에 대해서도 나열하고 있지 않다. ② 2문단에서 1차 압전 효과와 2차 압전 효과로 나누어 압전 효과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만 압전체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③ 2문단에서 압전 효과를 1차 압전 효과와 2차 압전 효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그 분류에 따른 압전체의 구조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은 없다. ④ 2문단에 압전 효과의 종류가 제시되어 있을 뿐 압전체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3문단에서는 고유 주파수, 질량 민감도 등의 개념을 통해 초정밀 저울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9.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같은 재료의 압전체라도 모양과 크기에 따라 고유 주파수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은 크기가 달라도 고유 주파수가 서로 같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1, 2차 압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압전체라 하며

압전체로는 수정이 주로 쓰인다고 하였으므로 수정 이외에도 압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수정을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수정 진동자를 만든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여 미세 질량을 측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1문단에서 저울은 흔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잰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3문단에서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 주파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10.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수정 진동자의 전극에 (+)와 (-)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는데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게 한다고 하였다. ㉠(수정 진동자)의 전극에 가하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을 압전체인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키면 압전체의 진동 폭이 커지지만, 고유 주파수는 달라지지 않는다. 주파수는 진동 폭이 아니라 진동 횟수와 관련된 개념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수정이 1차 압전 효과와 2차 압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인 압전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3문단에서 ㉠에 수정이 쓰인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에는 1차 압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존재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3문단에서 ㉠의 전극에 (+)와 (-)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해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이때, ㉠에서는 전압으로 인해 압전체인 수정의 기계적 변형이 일어나게 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3문단에서 수정을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들고 이후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들어 수정 진동자를 만든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는 전극이 양면에 있는 원판 모양이 수정이 사용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든 후 (+)와 (-)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는데,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킨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11.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으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하는 원리로 질량을 측정한다. 따라서 수정 진동자에 달라붙는 물질의 양에 따라 주파수의 감소 정도가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또한 4문단에 따르면 기체의 농도에 따라 진동자의 주파수는 감소하여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데, 감소 정도는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크다. 따라서 <보기>에서 B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었다면,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지 않았을 때보다 진동자의 주파수가 더 크게 감소해 일정하게 유지된다. 즉 이때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달라붙었을 때보다 더 작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 따르면,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놓아야 대상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주파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대상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다. 따라서 A의 진동자에 있는 압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혼합 기체에서의 알코올의 농도를 알 수 없다. ③ 4문단과 5문단에 따르면, 수정 진동자에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한 것은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통해 특정 기체의 농도를 알기 위함이다. <보기>에서 A와 B 모두 진동자에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알코올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지 진동자가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④ 5문단에 따르면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어 농도의 민감도를 구한다. 따라서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은 후에 생기는 주파수 변화 정도가 A가 B보다 크다면 A가 B보다 농도에 대한 민감도도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에 따르면,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자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척도는 반응 시간이다. B가 A보다 알코올이 일정량까지 달라붙는 시간이 더 짧다면, A와 B의 반응 시간이 서로 같은 것이 아니라 B의 반응 시간이 A의 반응 시간보다 더 짧다.

#### [12~17] 독서

#### [12~17] 인문, (가) 조선 시대 신분 제도의 변화 양상 / (나) 실학자들의 신분제 개혁론

**지문해설 :** (가)는 조선 후기 사회 변동에 따른 신분제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조선의 법적 신분제는 양천제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양인이 양반, 중인, 상민으로 분화되어 있었다. 조선 후기에 신분제의 동요가 일어나는데, 노비의 경우 도망과 속량의 방법으로 천인의 굴레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들은 유학(幼學) 직역을 얻어 양반으로의 신분 상승을 도모하였다.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음에도 이들이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웠다. 이는 조선 후기에 비양반층이 양반층으로 편입하려는 힘과 이를 막으려는 양반층의 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화와 유학의 증가 현상

**지문해설 :** (나)는 도덕적 능력주의에 입각하여 조선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유형원과 정약용의 개혁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형원은 신분 세습을 비판하고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하는 공거제를 주장하였다. 한편 정약용은 사농공상별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행정 구역 개편을 구상하고, 도덕적 능력에 따라 추천으로



---

예비 관료인 선사(選士)를 선발한 후 이들 중 관료를 선발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비제는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둘은 도덕적 능력을 기준으로 지배층을 재구성하여 도덕 국가 체제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주제]** 도덕적 능력주의를 통해 도덕적 이상 사회를 추구했던 유형원과 정약용의 개혁론

## 12.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 따르면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제는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는 양천제이다. 조선 후기 ‘유학’의 증가 현상은 양인 내부의 분화된 신분과 관련 되므로 『경국대전』의 신분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속량의 제도화는 국가의 재정 운영상 노비제의 유지보다 그들을 양인 납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속대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속량된 노비들은 양인이 가진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1문단에 따르면 『경국대전』의 법적 신분제는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법적 신분제는 갑오개혁으로 철폐되기 이전까지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되었다. 따라서 『경국대전』 반포 이후 갑오개혁까지 조선의 법적 신분제에는 두 개의 신분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 따르면 조선 후기 몰락한 양반들은 노비의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몸값을 받고 속량해 주는 길을 선택했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양반 중에는 노비를 양인 신분으로 풀어 주고 금전적 이익을 얻은 이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에 따르면 유학이 되면 군역을 면제 받았지만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었다. 이를 통해 상민이 유학의 직역을 얻게 되면 군역 면제라는 양반의 특권을 일부 가지게 되지만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13.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유형원은 과거제 대신 공거제를 통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으로 선발하여 여러 단계의 교육을 한 후,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하여 관료로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정약용은 도덕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추천으로 예비 관료인 선사를 선발한 후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 관료로 선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유형원과 정약용이 모두 예비 관료를 추천으로 선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약용은 예비 관료라고 할 수 있는 선사를 교육한 후 관료로 바로 임명하자고 주장하지 않았다. 정약용은 선사가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유형원은 비도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한 광대와 같은 직업군을 철폐하고자 하였다. 이 직업군은 유형원이 구상한 도덕 국가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②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유형원은 지방에도 관료 선발 인원을 적절히 분배하면 향촌 사회의 풍속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지방 사회의 도덕적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관료 선발 인원을 지방에도 할당하는 방안을 구상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의 4문단에 따르면 유형원과 정약용 모두 사회 전체의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해 사 집단에 정치권력, 경제력 등을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정약용은 사 집단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정약용은 사민이 뒤섞여 사는 것이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농공상별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행정 구역 개편 방안을 구상하였다.

#### 14.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은 양반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유학 직역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양반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은 신분과 상관없이 도덕적 능력이 우수하다면 지배층이 될 수 있도록 한 방안이므로, 능력주의에 따라 인재 등용에 신분의 벽을 두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을 조건으로 내건 것은 일부 상민층이 경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유학 직역을 획득하는 가운데에서 양반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은 정약용이 제시한 개혁안의 세부 내용으로, ㉠과 같은 장치를 통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양반층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② ㉠을 조건으로 내건 것은 일부 상민층이 유학 직역을 획득하는 가운데에서 양반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은 도덕적 능력에 따라 재편된 사 집단의 거주지에 더 많은 선사를 배치하는 것이고, 다른 직업의 거주지에도 선사를 배치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정약용이 이를 기존 양반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구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을 조건으로 내건 것이 신분 구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기에는 하나, (가)의 4문단에 따르면 이러한 비양반층의 진입을 막는 힘보다 비양반층이 양반에 접근하고자 하는 힘이 더 강하게 작동하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일부 비양반층의 신분 상승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은 도덕적 능력에 따라 선발하여 지배층을 재편하기 위한 방안이지 지배층의 인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은 아니다. ⑤ 조선 후기에 양반층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양반층의 특권이 사라져 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을 양반층의 특권이 사라져 가는 상황을 반

영한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은 유형원이 신분 세습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덕적 능력에 따라 사회 지배층을 재편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다.

### 15.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ㄱ은 사농공상의 사민 체제에서 지배층인 사가 도덕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과 연결되므로 유형원, 정약용의 입장과 부합한다. ㄴ은 농민도 도덕적 능력이 있다면 관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유형원, 정약용의 입장과 부합한다. ㄷ은 도덕적 능력으로 인재를 판정하고 모든 이에게 관료가 될 기회를 열어 둔다는 점에서 유형원의 입장과 부합하지만, 노비에게는 관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려 한 정약용의 입장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ㄹ에서 양반과 상민이 경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능력주의를 부정하고, 기존의 체제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유형원, 정약용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약용은 ㄱ에는 동의하지만 ㄷ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유형원은 ㄹ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② 유형원은 ㄴ, ㄷ 모두 동의할 것이다. ③ 유형원은 ㄴ에 동의하며, ㄹ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④ 정약용은 ㄹ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16.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유토피아에서는 학자 계급과 노동 계급의 이동이 가능하지만 학자 계급에서만 권력층이 나올 수 있으며 이들은 노동을 면제받는 특권을 가진다. 또한 학자 계급은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하여야 하며, 노동 계급도 공부에 진전이 있으면 학자 계급으로 승격될 수 있다. ‘승격’이라는 표현에서 두 계급 간 차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므로 두 계급 간 차등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4문단에 따르면 유형원과 정약용은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하였고, 사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유토피아에서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학자 계급이다. 이들은 성직자가 추천하고 대표들이 승인하는 선발의 과정을 거쳐 될 수 있다. (나)의 선사는 추천을 통해 선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수 있지만 (가)의 유학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학자 계급의 성격은 유학보다 선사에 가깝다. ② 유토피아에서 관료는 학자 계급에서만 나올 수 있다. 학자 계급은 노동을 면제받지만, 성과가 부족하면 노동 계급으로 환원이 될 수 있으므로 그 특권이 세습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해 16세기 이후의 양반은 세습적으로 군역 면제 등의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졌다. 따라서 특권의 세습 측면에서 유토피아의 관료가 16세기 이후의 양반

과 다르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③ 유토피아에서 학자 계급에서만 권력층이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은 학자 계급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우수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유형원, 정약용 역시 도덕적으로 우월한 집단인 사 집단에 정치권력을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유토피아의 권력 체제와 유형원, 정약용이 구상한 권력 체제가 유사점이 있다고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유토피아에서 노동 계급이 학자 계급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공부에 진전이 있어야 하고, 성직자의 추천과 대표들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와 달리 유학이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반 문화를 모방하면서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종과 족보에의 편입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따라서 노동 계급이 학자 계급으로 승격되는 것과 유학이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은 다르다.

## 17.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점점 몸에 배어 아주 자리를 잡게 되다.’의 의미로, ‘~으로’와 함께 쓰인다. 문장의 맥락과 ‘가훈으로’라는 부사어를 고려할 때 그 의미가 ㉠과 가깝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누르는 자국이 나지 아니할 만큼 단단하게 되다.’의 의미이다. ㉢ ‘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니할 만큼 힘이나 뜻이 강하게 되다.’의 의미이다. ㉣ ‘근육이나 뼈마디가 점점 뻣뻣하게 되다.’의 의미이다. ㉤ ‘표정이나 태도 따위가 긴장으로 딱딱하게 되다.’의 의미이다.

## [18~21] 문학

### [18-21] 고전소설 - 작가 미상, 「숙영낭자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안동의 한 양반 가정을 배경으로 하여 부부간의 사랑과 부모 자식 사이의 갈등과 화해를 다룬 고전소설이다. 천상의 선녀였던 숙영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백선군과 사랑하게 되어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지만, 부활하여 선군과 함께 승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효를 요구하는 부모와 그에 맞서 부부의 애정을 추구하는 자식의 모습이 조선 후기 사회에서 나타난 가치관의 변모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작품의 문학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 유교적 가부장제의 현실적 장애를 넘어선 남녀의 사랑

## 18.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춘양은 ‘어미 시신 흔들고 울며, 편지 열어 낮에 대고 통곡’하며, ‘아버님 편지가 왔’다고 말한다. 이로부터 아버지의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행동으로 표출함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춘양은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를 할머니로부터 전해 받고 어머니 영전으로 간다. 하지만 그곳에서 춘양이 아버지를 보고 싶은 심정을 언급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할머니로부터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지만 ‘춘양은 글을 몰라 어머님 영전에 읽어 드리지 못’해 답답해한다. 이를 통해, 춘양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읽어 주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춘양은 할머니께 편지를 읽어 주기를 요청할 뿐, 할머니와 함께 어머니 생전의 일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는다. ④ 춘양은 동생인 ‘동춘을 안고’ 어머니의 시신이 있는 ‘방에 들어’갔으며, 동춘은 ‘젓 먹자고’ 울 뿐 어머니가 살아 있는 줄 알고 찾아가려 하거나 이를 춘양이 막아서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19.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B]에서 선군은 ‘태산 같은 정이 ~ 볼 수 없고’라며, 받는 이를 만나고 싶지만 당장 그럴 수 없는 처지를 언급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에서는 ‘그사이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셨나이까?’라며 받는 이의 안부를 먼저 묻고 나서 ‘저는 부모님 덕분에 무탈하’다는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있다. ③ [B]에서 글쓴이는 받는 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대의 그림이 전과 ~ 달라 날로 변하’는 것을 보고 짐작을 통해 받는 이를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글쓴이는 [B]에서 ‘낭자의 지극한 정성으로 ~ 뜻을 맞추지 아니하였으리오?’라고 하며 상대방의 뜻에 합당한 일을 이루었음을 말하면서 받는 이에게 그 공을 돌리며 감사해하지만, [A]에서는 ‘천은을 입’었다고 말할 뿐 받는 이에게 그 공을 돌리며 감사해하지는 않는다. ⑤ [B]에서는 ‘천금 같은 옥체를 보존하’라면서 받는 이가 스스로 잘 처신하기를 바라는 당부의 내용이 나오지만, [A]에서 ‘잔치는 알아서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전할 뿐 받는 이가 글쓴이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라는 당부는 나타나지 않는다.

## 20.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에서 숙영이 ‘천명이 아닌 것이 없’다고 말하는 데에서 자신의 운명은 하늘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숙영이 ‘너무 한탄치’ 말라고 말하는 것은 시아버지의 오해로 인해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이지 집에 돌아온 자신을 책망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④: 정 씨는 편지의 수신인이 ‘네 어미’임을 말해 주고 있으며 상대에

게 ‘잘 간수 하라’면서 상대가 편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② ㉞: 정 씨는 ‘춘양아’, ‘동춘아’라고 손주들을 호명하면서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통곡’할 만큼 격해진 감정과 ‘너희 어미 잃고 어찌 살라하는가?’라며 그들을 불쌍해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④ ㉠: 숙영은 옥황상제의 ‘올라오라’는 부름에 ‘천명을 거스르지 못하여 올라’간다고 말함으로써 예정된 이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⑤ ㉡: 숙영은 부모가 춥지 않게 지내고 기운이 불편하지 않도록 걱정하는 마음으로 ‘백세 무양’을 기원하며 백학선과 약주를 선물하고 있다.

##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숙영 부부가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엮드려 고’하는 것은 선군이 부모와의 이별을 앞둔 상황에서 ‘부모지정을 잊지 못하여 새로이 슬퍼’했을 뿐이지, 숙영 부부가 승천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숙영 부부는 ‘천명을 거스르지 못하’며 ‘세상 연분이 다하였’다고 말하면서 승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숙영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으로 모셔 가겠다고 하는 것은 숙영 부부가 먼저 천상으로 올라가고 지상에서 부모님의 생애가 끝나면 그때 부모님을 천상으로 모셔 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연화궁에서 숙영과 부모를 다시 만나게 하는 것은 <보기>에 따르면 숙영 부부를 천상에 간 뒤에도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으로 그려냄으로써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려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② 숙영이 선군에게 천궁으로 ‘올라갈 때가 급하였으니’, ‘올라가사이다’라고 하는 것은 숙영이 선군에게 인간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자고 재촉하는 것이다. 이러한 숙영 부부의 승천은 <보기>에 따라 감상할 때, 숙영 부부를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인 가문이라는 명분에 구속받지 않으면서 가족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천상으로 보내서 살게 하려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④ 숙영 부부가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부모를 떠나는 것은 <보기>에 따라 감상할 때, 가문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진 인간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여 준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⑤ 숙영 부부가 ‘천궁에 올라간 후’, 상공 부부가 ‘망연해하며 세간을 다 나누어 주’는 것은 가문의 명분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가족을 잃어 허망해하는 상공 부부의 모습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공 부부의 모습은 <보기>에 따라 감상할 때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

[22-27] 갈래 복합 (가) 박용래, '월훈' / (나) 김영랑, '연1' / (다) 서영보, '문의당기'  
지문해설 : (가)는 적막한 산골의 외딴집에 사는 노인의 절절한 외로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의 화자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노인이 사는 곳과 노인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노인은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갯 속 같은 마을'의 '외딴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는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곳으로 노인이 세상과 고립된 채 살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곳에서 노인은 한밤에 잠에서 깨어 무나 고구마를 깎아 먹기도 하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무료함과 고독감,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름 모를 새'와 '귀뚜라미', 달무리가 비치는 시적 분위기도 이러한 노인의 처지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주제] 외딴집에 사는 노인의 외로움과 그리움

(나)는 '연'을 매개로 하여 떠올린 유년 시절의 기억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하늘 높이 날고 있는 연을 보며 '아스플'한 유년 시절을 반추하고 있다. 그런데 화자가 회상한 어린 시절은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 '외로이 자랐다', '눈물이 고이었었다'라는 시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외롭고 슬픈 정서를 떠올리게 한다. 이처럼 화자에게 유년 시절은 늘 위태로웠고, 무언가를 상실했던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파랑'게 보이는 '하늘'과 '흰 연', '하얀 옷', '하얀 냇'과 '붉은 발자욱'은 선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 애상적 정서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주제] 슬프고 외로웠던 유년 시절의 회상

(다)는 집의 이름을 '문의'라고 지은 것과 관련하여 세상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는 고전 수필이다. 신위는 세상 사람들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자기의 집의 이름을 '문의'라고 지었다고 밝히며, 글쓴이에게 이 집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부탁한다. 이에 글쓴이는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과 배를 집으로 삼고 사는 사람의 예를 들어 신위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대지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섬사람이므로, 물이 보이는 곳에 집을 짓고 살더라도 늘 물을 보고만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다 물을 보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상대주의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주제] 상대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의 중요성

##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갯 속 같은 마을',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등은 노인이 사는 곳을 묘사한 것으로, 노인이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2연은 하늘을 날고 있는 연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진 부분으로, 연이 위태롭게 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다)에서 ‘넘실거리는 큰 바다 ~ 듯했습니다.’는 ‘천하의 지도’를 묘사한 것으로, 천하만국이 물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세 작품은 모두 묘사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다)에서 ‘이와 같은 이치를 ~ 의심을 품겠소?’는 설의적 표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신위의 관점이 타당하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였다. (가), (나)에는 설의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③ (가)에서는 청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을 구사했다고 볼 수 있으며, (다)에서는 신위와 ‘나’가 상대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였다. 그런데 (나)에는 상대에게 말하는 방식이 쓰이지 않았다. ④ (나)에는 화자가 자신의 유년 시절에 대해 회상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가), (다)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⑤ (가)에는 겨울 귀뚜라미가 떼를 지어 우는 상황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 내고 있지는 않았다. (나)에는 가상의 상황이 나오지 않았고, (다)에는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을 통해 가상의 상황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 2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를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보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을 부각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을 ‘여긴 있’다고 한 것은 노인이 사는 마을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곳임을 나타낸 것이다. ②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는 ‘후미진 외딴집’은 노인이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살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적막한 공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불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와 ‘콩깍지’의 이미지는 모두 시골의 정경과 관련된 것으로, 이것은 <보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점점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이다. ⑤ ‘밭은기침 소리도 없’는데 ‘겨울 귀뚜라미’가 우는 상황은 <보기>의 ‘깊은 정적 속 울음소리’와 연결 지을 수 있으며, 눈발이 치는 듯한 ‘밖’의 달무리 이미지는 <보기>의 ‘외딴집 창호지 문살에 비친 달무리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노인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기 위한 설정으로 볼 수 있다.

### 24.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정답해설 : 4연에서 ‘하얀 녀’는 ‘외로이 자랐다’라는 시구, 곧 유년 시절의 화자가 느낀 외로움과 연관된다. ‘붉은 발자욱’ 역시 ‘눈물이 고이엿었다’라는 시구, 곧 유년 시절 화자가 느꼈을 슬픔과 연관된다. 이처럼 ‘하얀 녀’와 ‘붉은 발자욱’은 모두 애상적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의미를 이끌어 낸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연에서는 ‘내 어린 날’의 기억을 ‘아슬한 하늘에 뜬 연’, ‘바람에 깎박이는 연실’에 빗대어 ‘아스플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② 2연에서 ‘연실’의 긴장을 보며 느끼는 초조함과 불안감은 3연에서 연실이 ‘끊어’져 울었던 상황과 연결되므로 정서의 고조를 유발한 것이다. ③ 3연에서는 ‘울다’를 반복하고 있고, 4연에서는 ‘눈물이 고이었던’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내 어린 날’이 힘들고 괴로웠음을 짐작하게 한다. ⑤ 2연에서 화자는 연을 보며 유년 시절을 기억하는데, 1연과 4연에서는 그 시절에 대한 인상과 정서가 표출되어 있다.

## 25.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의 ‘아실아실’은 위태로움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을 드러내는 말로, 너무 높이 떠 오른 연이 끊어지지 않는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 높이 날아오른 연을 동경하는 심리를 표현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해가 갑자기 사라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 산속 마을에 갑자기 밤이 찾아왔음을 함축하고 있다. ② ㉡은 처마 기에 나래를 묻는 새가 내는 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④ ㉢은 흰 빛깔이 보일 듯 말 듯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 끊어진 연줄을 보며 서러워하는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⑤ ㉣은 초조하고 불안한 심리를 나타내는 말로, 외롭고 슬펐던 어린 시절의 상황을 표현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 26.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신위는 세상 사람들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의미로 자기 집 이름을 ‘문의’라고 하였고, ‘나’도 신위의 생각에 동의한다. 그런데 이는 신위의 상황이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들의 상황보다 집에 ‘들어앉아 사는 사람’의 상황과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두 상황 모두 결국 물 가운데 사는 것은 같다고 보기 때문에 신위의 생각에 동의한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신위는 자신이 도성 안에 있기 때문에 ‘불만한 샘이나 못’이 없는 곳에 산다고 생각하지만, ‘천하의 지도’를 보고 자신이 물 가운데 사는 것과 다름없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③ ‘나’는 ‘바다의 섬’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을 보고 그들이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도 ‘물에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관점을 달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섬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④ ‘나’는 ‘바다의 섬 가운데’ 살더라도 사람들이 ‘산에 산다’고 하지 않고 ‘물에 산다’고 하는 예를 들어, 신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⑤ ‘나’는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

도 물이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나 신위가 물을 보지 못하므로 ‘물을 보는 법’을 ‘써 볼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이 유사한 상황이라고 본다. 이 두 경우를 의미하는 ‘겨우 반걸음을 움직인 것’과 ‘천 리를 간 것’이 ‘매한가지라 할 것’이라 인식한 것이다.

## 2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다)의 ‘파도’와 ‘깊은 물’은 물에 사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이 있다. ‘나’는 이를 통해 물에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바다를 매일 만나지는 않지만 이들이 물에 사는 것은 분명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갯 속 같은 마을’은 쉽게 찾을 수 없는 공간이라는 유사성이 있다. ② (가)의 ‘무우’와 ‘고구마’는 노인이 무료를 달래기 위해 먹는 음식으로, 노인이 먹는 음식의 차가움과 따뜻함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③ (다)의 ‘천하의 지도’에 그려진 ‘아홉 개 대륙’과 ‘일만 개 나라’는 물에 둘러싸인 공간이라는 유사성이 있지만, 이를 통해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의 ‘모과빛’과 ‘기인 밤’은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이루지만, (다)의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모두 ‘작은 나라’의 모습을 비유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즉 두 소재는 대립이 아니라 유사의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8~31] 문학 ‘현대 소설’

### [28-31] 현대 소설 - 양귀자, ‘월미동 시인’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작가의 『월미동 사람들』 연작 중 하나로, 일상인들의 소시민적 근성과 세태를 고발하는 동시에 그들을 향한 작가의 연민과 애정의 시선을 보여 주고 있는 단편 소설이다. 사건의 핵심 인물은 두 사람인데, ‘김 반장’은 소시민적 근성을 보여 주는 전형적 인물로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는 친구도 외면할 수 있는 이기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다른 한 사람은 동네에서 바보 취급을 받는 ‘월미동 시인’ 몽달 씨로 그런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보듬어 주는 존재이다. 한편 이 작품은 ‘나’라는 어린아이 서술자를 설정함으로써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선을 통해 어른들의 부정적 세계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소시민적 근성에 대한 비판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향수

## 28.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나’는 김 반장이 ‘그날 밤’ 몽달 씨를 쫓아내는 행동을 했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김 반장이 몽달 씨를 매정하게 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나’는 몽달 씨가 히죽히죽 웃으며 김 반장네 가게의 음료수 박스들을 쟁여 놓는 일을 하는 모습을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통해 몽달 씨가 김 반장네 가게 일을 해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선옥이 언니가 서울로 떠난 후, ‘나’를 대하는 김 반장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맞지만 김 반장이 ‘나’를 통해 선옥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나’는 김 반장을 자신보다 스무 살이나 많지만 친구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매일같이 그와 함께 낄낄거리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다시피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김 반장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김 반장은 선옥이 언니가 떠난 후 ‘나’를 다소 통명스럽게 대하였지만 빈둥거리며 실없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④ ‘나’는 선옥이 언니의 예쁜 얼굴에 대해 평가하며,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자신의 집을 지지리 궁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나’가 집안 형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는 몽달 씨가 자신보다 스무 살이나 많지만 엄연히 친구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 ‘나’는 김 반장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김 반장네 가게 일을 하고 있는 몽달 씨를 기억 상실증 환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몽달 씨를 친구로 생각한 것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다.

## 29.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해설 :** 몽달 씨는 ‘나’가 ㉠을 말하자 애써 외면하고 모르는 척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나’는 김 반장의 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몽달 씨의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한다는 의미에서 ㉠과 같은 말을 건네고 있다. 그러므로 ㉠은 김 반장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몽달 씨의 판단을 수용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은 몽달 씨가 그동안 시를 자주 읽곤 하였는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상황에서도 예전과 같이 시를 읽고 있는 것에 대한 ‘나’의 못마땅함이 투영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를 고려할 때, ㉠은 실컷 두들겨 맞고 열흘간이나 누워 있다가 일상으로 복귀한 몽달 씨의 상태에 대한 ‘나’의 관심에서 비롯된 질문으로 볼 수 있다. ㉡ 몽달 씨는 ㉡와 같은 말을 건네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몽달 씨는 ㉢에서 자신이 시를 읽으며 누워 있었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몽달 씨는 시를 통해 위안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 ‘나’는 김 반장의 행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몽달 씨가 ㉡와 같은 말을 한 것을 듣고 그의 정신 상태에 실망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의

일에 대한 기억을 상실한 것으로 생각되는 몽달 씨가 진실을 알게 되면 새로운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㉔와 같은 말을 건넨 것으로 볼 수 있다. ㉕ 몽달 씨는 ‘나’가 ㉔와 같은 말을 건네자 김 반장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몽달 씨의 반응에 대해 ㉔와 같은 말을 하며 다그침으로써 몽달 씨의 태도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30.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여기’는 김 반장네 가게 앞에 있는 비치파라솔로, ‘나’는 ‘여기’에서 ‘그날’ 김 반장이 몽달 씨를 쫓아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요즘’은 ‘나’와 김 반장이 재미있게 지내다가 선옥이 언니가 서울로 떠나며 김 반장의 태도가 다소 통명스러워졌던 시점으로, ‘나’가 김 반장을 친구라고 여기던 시간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나’가 몽달 씨에게 건넨 말에 따르면, ‘나’는 ‘그날’, 김 반장이 몽달 씨를 쫓아내는 행동을 보고 김 반장을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날’ 김 반장의 행위는 김 반장을 친구로 생각하던 ‘요즘’ 이후에 벌어진 것이며, 김 반장에 대한 ‘나’의 평가가 달라지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㉕

**[오답피하기]** ㉑ ‘나’는 김 반장을 친구로 여기고, ‘매일같이’ 재미있게 킁킁거리는 행동을 했었지만, ‘그날’ 김 반장이 몽달 씨를 쫓아내는 행동을 보고 그를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나’가 ‘매일같이’ 김 반장과 재미있게 킁킁거리던 행위는 ‘그날’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 ‘그날’의 일을 지켜보기만 한 자신에 대한 ‘나’의 부정적 자기 인식이 드러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㉒ ‘나’는 김 반장이 ‘요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다소 통명스러워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김 반장이 ‘나’를 통명스럽게 대하는 행위가 ‘요즘’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졌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 이 글에서 김 반장이 ‘나’에게 반성을 유도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㉓ 몽달 씨가 ‘히죽히죽’ 웃는 행위를 한 것은 김 반장네 가게의 음료수 박스들을 나를 때이며, 이는 ‘여기’에서 ‘나’에게 속내를 감추는 것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나’에게 진심을 드러내어 보여 주는 행위는 아니다. ㉔ ‘나’는 실컷 두들겨 맞고 열흘간이나 누워 있던 몽달 씨가 일상으로 돌아와, ‘의자’에서 시를 읽고 있는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몽달 씨의 행위가 ‘그날’ 김 반장의 행동에 대한 기억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몽달 씨가 ‘의자’에서 시를 읽는 행위가 ‘그날’의 경험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31. 서술자의 태도 파악

**정답해설 :** ㉔에서 서술자인 ‘나’는 미숙한 어린아이의 상상력을 통해 몽달 씨가 부분적인 기억 상실증 환자라고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판단은 독자들로 하여금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상상력에서 드러나는 비합리성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서술자인 ‘나’를 의심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선옥이 언니와 좋아지냈던 김 반장이 선옥이 언니가 서울로 떠나자 동생인 ‘나’에게 다소 통명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㉑의 내용은 개연성과 합리성이 높아,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② ㉒에는 차마 마주보기 어려울 만큼 핏뚱한 몽달 씨의 안색과, 그러한 안색을 갖게 된 이유로 실컷 두들겨 맞아 열흘간이나 누워 있었다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㉒의 내용은 인물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기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㉓에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인 ‘나’, 즉 서술자가 논리적, 사실적 관계를 따져 보지 않고 단순한 추측에 근거해 몽달 씨의 의식 상태를 단정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이처럼 합리성이 부족한 어린아이의 특성이 강화되어 독자가 서술자를 의심하게 되면, 독자는 서술자와 다른 각도에서 작품이 전하려는 의미를 탐색하고 작품을 더욱 집중하여 읽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㉔에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인 ‘나’가 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합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몽달 씨가 시를 읽는 행위를 비난하며 못마땅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나’의 태도와 행동은 <보기>에서 언급한 합리성이 부족한 미성숙한 어린아이 서술자의 특성이 강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독자가 작품에 더욱 집중하면서 서술자와 다른 각도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2~34] 문학**

**[32-34] 고전시가 - (가) 정철, ‘성산별곡’ / (나) 작자 미상, 사설시조**

**(가) 정철, ‘성산별곡’**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정철이 벼슬길에 나서기 전 전라남도 담양의 성산에 있는 서하당과 식영정 주변의 자연 경관과 더불어 그 주인에 해당되는 김성원 등의 은거와 풍류 생활을 예찬한 가사 작품이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성산 주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이 작품은 작가 자신으로 추정되는 손님과 김성원으로 추정되는 주인의 문답 형식을 빌려 성산의 외적인 생활 환경과 내적인 정신세계를 그려냈다.

**[주제]** 성산에 묻혀 사는 삶의 흥취

**(나) 작자 미상, 사설시조**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자연 속에서 꿩 사냥과 고기잡이를 하는 일상적 삶의 즐거움과

풍류를 노래하고 있다. 초장에서는 생매를 풀어 뽕을 사냥하는 모습이, 중장에서는 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이 생동감 넘치는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화자는 이렇게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삶을 사는 자신을 산중호걸이라 표현하며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뽕 사냥과 물고기잡이를 하며 풍류를 즐기는 삶에 대한 자부심

### 3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의 초장에서 ‘활활 살살’은 말을 솔질하는 종의 행위를, ‘꽝꽝쌩쌩’은 말뚝 박는 행위를 역동적으로 나타낸 구절로 볼 수 있으며, 중장에서 ‘주섬주섬’, ‘와지끈 똑딱’, ‘주루룩’, ‘너슬너슬’ 등은 물고기를 잡는 화자의 행위를 역동적으로 나타낸 구절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 할샤’에서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③ (가)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 정경의 변화를 묘사한 부분을 확인할 수는 있으며,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냈다고 볼 수도 있다. (나)에서는 두 개의 개별적 공간에서의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으며, 공간 이동의 양상이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나)에서 화자는 생매를 이용하여 뽕 사냥을 한 후 여울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화자의 심리 변화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⑤ (가)의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 할샤’에서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성현과 호걸은 대조적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의 중장에서 ‘앞내 여울 고기 뒷내 여울 고기’와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에서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에서 고기들을 대조적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

### 33.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화자는 ‘어찌한 시운이 흥망이 있었는고 /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변화가 심한 인간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화자의 담담한 태도가 표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모습으로 보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화자는 눈 덮인 산의 아름다움을 ‘천공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산에 눈이 덮인 것은 ‘작풍’이 불어 공산에 쌓인 가을 잎을 쓸고 간 이후이므로 눈 덮인 산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은 가을에서 겨울



로의 계절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경요굴’은 눈 내린 성산의 모습을 빗댄 말로, 화자는 경요굴 숨은 세계를 찾을 이가 있을까 봐 두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성산의 빼어난 경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성산의 경치가 속세의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을 염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화자는 ‘만고 인물’을 거슬러 생각하며 시운의 흥망에 애달픔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정신적 세계에 주목하는 태도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산중에 벗이 없’는 적적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기산의 늙은 고블’은 기산에 은거한 전설적인 인물인 허유를 가리키는 말로, 허유는 세상과 단절하고 은거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험한 세사와의 단절과 은거 지향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지조가 가장 높다’는 말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용’은 피리 소리로 조성된 탈속적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표현한 소재로 볼 수 있으나, (나)의 ‘생매’는 꿩 사냥에 동원된 새인 ‘매’를 가리키므로 이를 고고한 취향을 보여 주는 소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학’은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 세계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의 ‘고기’는 앞내 여울과 뒷내 여울을 오르내리는 물고기로 화자는 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 움버들 가지에 꿰어 놓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물고기는 풍요롭고 생동하는 세계를 표현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③ (가)의 ‘소선’과 ‘적선’은 각각 소동파와 이태백을 신선에 빗댄 말로 청정한 강호의 세계인 성산에서 떠올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학 타신 선관이 자신을 찾아오거든 뒷내 여울로 오라고 일러 달라 말하고 있다. 화자는 뒷내 여울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으므로 ‘선관’은 화자가 함께 물고기를 잡으며 풍류를 즐기려 하는 인물을 멋스럽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가)의 ‘산옹’은 서하당과 식영정의 주인인 김성원을 가리키는 말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 세계의 삶을 지향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나)의 ‘나’는 초장에서는 매를 이용하여 꿩을 사냥하는 모습을, 중장에서는 여울에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현실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화자는 세상사는 구름처럼 험하다고 탄식하며 술을 마시고 있으므로 ‘술’은 강호에서 세상에 대한 시름을 달래 주는 소재로 볼 수 있다. (나)의 화자는 동자에게 학을 타신 선관이 자신을 찾으면 술을 가져 오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으므로 ‘술병’은 물고기를 잡는 풍류의 장에 흥취를 더해 줄 소재로 볼 수 있다.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④ 36. ③ 37. ⑤ 38. ② 39. ① 40. ⑤ 41. ② 42. ⑤ 43. ① 44. ③  
45. ④

[35~36] 언어

[35~36] 다양한 단어 형성 방식

**지문해설 :** 이 글은 합성과 파생을 포함한 다양한 단어 형성 방식을 여러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1문단에서는 직접 구성 요소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으로만 이루어졌는지, 접사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합성어와 파생어가 구분됨을 기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2문단에서는 단어 형성 시에 구성 요소의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를 ‘한 단어에서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의 처음절끼리

결합한 경우’,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에서 어떤 말의 앞부분과 다른 말의 뒷부분이 결합한 경우’의 세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3문단에서는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이 줄어들어 형성된 단어와 그 단어의 형성에 사용된 말 사이의 의미 관계에 대해 ‘대남’과 ‘고법’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주제] 복합어와 형태가 줄어들며 형성되는 단어

### 35.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해설** : ‘놀이방’은 직접 구성 요소가 ‘놀이’와 ‘방’이다. ‘놀이’는 ‘놀-’과 ‘-이’로 형태소를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모두 의존 형태소이다. ‘단맛’은 직접 구성 요소가 ‘단’과 ‘맛’이다. ‘단’은 ‘달-’과 ‘-ㄴ’으로 형태소를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모두 의존 형태소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용꿈’은 직접 구성 요소가 ‘용’과 ‘꿈’이며, 이 중에서 ‘꿈’은 ‘꾸-’와 ‘-ㅁ’으로 형태소를 나눌 수 있으므로 한 개의 자립 형태소로 이루어진 어근이 아니다. ② ‘망치질’은 직접 구성 요소가 ‘망치’와 ‘-질’이며, ‘-질’은 접사이므로 ‘망치질’은 파생어이다. 그러나 ‘봄날’은 직접 구성 요소가 ‘봄’, ‘날’이기 때문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③ ‘지은이’의 직접 구성 요소는 ‘지은’과 ‘이’이며, ‘이’는 자립 형태소이다. 그러나 ‘짓- + -은’으로 분석되는 ‘지은’에는 자립 형태소가 없다. ⑤ 의미를 고려할 때 ‘꽃고무신’의 직접 구성 요소는 ‘꽃’과 ‘고무신’이다.

### 36. 단어의 이해

**정답해설** : ‘직접’과 ‘선거’의 첫음절끼리 결합한 ‘직선’은 ㉠에 해당한다. 또한, ‘직선’이 여러 선거 방식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직선’은 ‘선거’와 상하 관계를 맺는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흰자’는 ‘흰자위’의 일부가 줄어들어 형성되었기 때문에 ㉡에 해당한다. 또한, ‘흰자’와 ‘흰자위’는 서로 바꾸어 써도 그 의미에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서로 유의 관계를 맺는다. ② ‘공격’과 ‘수비’의 첫음절끼리 결합한 ‘공수’는 ㉠에 해당한다. 또한, ‘공수’는 ‘공격과 수비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공격’, ‘수비’ 각각과 상하 관계를 맺는다. ④ ‘민간’의 앞부분과 ‘투자’의 뒷부분이 결합한 ‘민자’는 ㉢에 해당한다. 또한, ‘민자’가 여러 투자 방식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민자’는 ‘투자’와 상하 관계를 맺는다. ⑤ ‘외국’의 앞부분과 ‘영화’의 뒷부분이 결합한 ‘외화’는 ㉢에 해당한다. 또한, ‘외화’가 영화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외화’는 ‘영화’와 상하 관계를 맺는다.

### 37.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해설 :** ‘버들잎 → [버들립]’에서는 ‘버들’과 ‘잎’ 사이에 ‘ㄴ’이 첨가되며, 첨가된 ‘ㄴ’이 ‘ㄹ’의 영향으로 ‘ㄹ’로 교체된다. 또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표’이 ‘ㅂ’으로 교체된다. 따라서 첨가가 한 번,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덧입어 → [던니버]’에서는 ‘덧’과 ‘입어’ 사이에 ‘ㄴ’이 첨가된다. 또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ㅅ’이 ‘ㄷ’으로 교체되며, 교체된 ‘ㄷ’은 ‘ㄴ’의 영향으로 ‘ㄴ’으로 교체된다. 따라서 첨가가 한 번,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둘 다 ㉠에 해당하는 예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재밋는 → 재밌는 → [재민는]’에서는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엄매는 → 억매는 → [영매는]’에서는 탈락이 한 번,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② ‘불이익 → 불니익 → [불리익]’에서는 첨가가 한 번,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견인력 → [거닌력]’에서는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③ ‘똑같이 → 똑같이 → [똑까치]’에서는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파묻힌 → 파무틴 → [파무친]’에서는 축약이 한 번,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④ ‘옴조려 → 옴조려 → 옴쪼려 → [옴쪼려]’에서는 교체가 두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난다. ‘겉늬어 → 겉늬어 → [건늘거]’에서는 교체가 두 번 일어난다.

### 38. 문법 요소의 효과와 활용

**정답해설 :** ㉠에서 ‘동생’을 ‘할머니’로 바꾸면 ‘나는 할머니께 책을 읽혔다.’가 된다. 책을 ‘읽히는’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읽혔다’에 ‘-시-’를 넣을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 ㉡에서 ‘형’을 ‘어머니’로 바꾸면 각각 ‘어머니께서 동생을 업으셨다.’, ‘동생이 어머니께 업혔다.’가 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에서 ‘동생’을 ‘할머니’로 바꾸면 ‘나는 할머니께서 책을 읽으시게 하였다.’가 된다. ‘읽는’ 주체는 ‘할머니’이기 때문에 ‘읽게’에 ‘-으시-’를 넣어야 한다. ④ ㉠, ㉡는 각각 ‘형이 동생을 업고 있다.’와 ‘동생이 형에게 **업히고** 있다.’가 된다. 이 중 ‘형이 동생을 업고 있다.’는 완료상과 진행상으로 모두 해석될 수 있지만 ‘동생이 형에게 **업히고** 있다.’는 **진행상**으로만 해석된다. ⑤ ㉠, ㉡는 각각 ‘형이 동생을 업고 있다.’와 ‘나는 동생에게 책을 읽히고 있다.’가 되고, 둘 다 진행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 39. 중세 국어의 문법

**정답해설 :** ㉠에서는 체언 ‘바를’에 부사격 조사 ‘애’가 결합한 ‘바르래’가 부속 성분인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에서는 체언 ‘나라ᄃᆞ’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나라ᄃᆞ’가 부속 성분인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또한, 체언 ‘中國’에 부사격 조사 ‘애’가 결합한 ‘中國애’가 부속 성분인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에서는 체언 ‘生人’에 관형격 조사 ‘이’가 결합한 ‘生人’이 부속 성분인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㉔에서 체언과 조사가 결합한 것은 ‘子息이’와 ‘양지’인데 둘 다 주성분인 주어로 쓰이고 있다. ㉕에서 체언과 조사가 결합한 것은 ‘내’와 ‘네’인데 둘 다 주성분인 주어로 쓰이고 있다.

[40~43] 매체

40. 매체의 소통 방식

정답해설 : 학생회장의 발언 내용 중 학생회 내부 회의를 통해 사용 원칙을 마련했다는 내용이 공약 이행과 관련하여 자막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학생회장이 화면에 대해 따로 설명하며 수용자가 요구한 정보를 강조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진행자는 ‘□□고 학생들,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며 방송을 시작하여, 소식을 들을 수용자가 ‘□□고 학생들’임을 밝히고 있다. ② 진행자는 ‘현재 접속자 수가 253명’이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방송보다 100명 더 입장했’다는 정보도 함께 제시하여 접속자 수 차이를 알려 주고 있다. ③ 학생회장은 실시간 대화 창에 글을 올린 학생들 중 ‘동주’와 ‘다예’라는 학생의 이름을 언급하며, 수용자의 실시간 반응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④ 학생회장은 학습실 사용과 관련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정리한 표를 제시하며, 방송을 시청하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41.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정답해설 : [B]에서 다예는 학생회가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 원칙을 마련했다는 학생회장의 발화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아.’라는 반응을 보이며 학생회의 결정이 타당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에서 동주는 학습실의 자리를 맡느라 종례에 늦을 뻔했던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학생회장의 이야기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학습실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다는 학생회장의 이야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B]에서 재호는 방송에서 제시된 설문 조사 결과를 보고 학년별로 선호하는 방법이 다른 이유에 대해 궁금해했을 뿐, 학생회의 설문 조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④ [C]에서 현지는 학습실 사용 원칙에 대한 학생회장의 발화를 듣고 개인적인 아쉬움을 표현했을 뿐, 발언 내용의 논리적 오류를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⑤ [C]에서 연수는 학생회장이 말한 사용 원칙 중 제시된 자료만으로 끌어내기 어려운 원칙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질문하고 있을 뿐,

---

학생회가 마련한 원칙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 42. 매체 언어와 개인적·사회적 소통

**정답해설 :** (나)에서 댓글 기능을 활성화한 것은 학생회의 결정에 대해 친구들이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학생회에 전할 의견은 학생회 공식 카페를 통해 전달하도록 안내하며 카페로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회장은 두 번째 발언 중, ‘다음 대의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는 내용을 고려할 때 학습실 사용자들은 아직 선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을 반영하여, 방송에서 캡처해 둔 표를 제시하면서 ‘요일별 구분’을 원칙으로 선택한 이유와 관련한 내용이 방송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을 반영하여, 학생회장이 실시간 대화 창에서 학생회를 응원하는 ‘다 예’의 말에는 호응하고 있지만, ‘연수’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을 반영하여, 내부 회의뿐 아니라 설문 조사를 통해 학년별로 사용할 요일을 정하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을 반영하여, 화면에 자막으로 제시한 카페 주소는 바로 연결하기 어려움을 고려하여 학생회 공식 카페로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를 제공하고 학생회에 의견을 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클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4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학생회장이 학생들에게 ‘직접’ 알리는 내용은 ‘자신의 방송 출연 사실’이 아니라 ‘학습실 사용 원칙을 정하겠다는 공약’에 관한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어서’를 통해 ‘개별 및 조별 학습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자재를 쓸 수 있’다는 점이 인기가 많은 이유임을 드러내고 있다. ③ 추측의 의미를 지니는 선어말 어미 ‘-겠-’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실 사용의 불편에 공감할 것이라는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④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부터’를 통해 ‘언제부터 ~ 신청할 수 있나요?’가 학습실 사용 신청의 시작 시점을 묻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뒤의 사실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면’을 통해 ‘대의원회에서의 안건 통과’가 ‘사용 원칙에 따른 학습실 사용 신청’의 선행 조건임을 드러내고 있다.

---

[44~45] 매체

44.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정답해설 : (가)에서는 ‘대출 조회/연장’이나 ‘대출 예약’ 등과 같이 도서 이용과 관련된 여러 기능이 제공되고 있지만, (나)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에서는 게시물에 대하여 ‘조회 수 53’과 같이 조회 수가 화면에 표시되지만, (가)에서는 게시물의 조회 수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② (나)에서는 ‘수정’ 버튼을 통해 게시물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가)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확인할 수 없다. ④ (가)에서는 ‘추천 도서’와 ‘신간 도서’의 도서 이미지 옆에 ‘상태’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 각각의 대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만, (나)에서는 이러한 정보 표시를 확인할 수 없다. ⑤ (가)에서는 ‘통합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도서를 검색할 수 있지만, (나)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확인할 수 없다.

45.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정답해설 : (나)에서 학생은 ‘도서를 살펴보다가 관심 도서로 저장하는 기능도 앱에 추가’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사서는 ‘관심 도서 기능은 도서 이미지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를 눌러 사용하실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학생이 요청한 기능은 이미 ㉠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므로, 학생이 ㉠의 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학생은 휴관 안내 설명에 휴관 날짜를 함께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② ‘공지 사항’에서 ‘+ 더 보기’를 누르지 않고도 공지 사항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해달라는 학생의 요청에 대해서, 사서는 첫 화면이 너무 길어져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학생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③ ‘추천 도서’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묻는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사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도서관 정보나루의 자료를 토대로 우리 도서관 사서들이 의논하여 선정’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⑤ ‘인기 도서’가 월별 통계인지, 연도별 통계인지 궁금하다는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사서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누적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더 보기+’를 누르면, 기간, 연령,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순위에 따라 배열된 도서 목록을 볼 수 있다’는 정보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